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 소식

2014

3월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2014년 3월 통합 259호

발행인 : 편국자 /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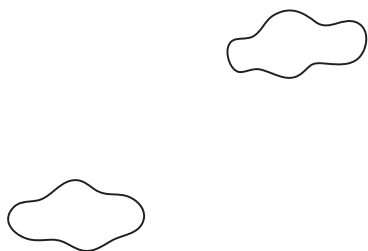
참교육 소식

창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CONTENTS

3월

- 여는 글 p3
- 기획글 - 학교 혁신을 위해서 p4
- 회원탐방 - 김소영 회원을 만나다 p8
- 어린이글 p12
- 청소년글 p13
- 대학생글 p17
- 회원글 - 내 아이만이 아닌 p19
- 시 이야기 - 성장 p21
- 김진아의 센터 이야기 p22
- N의 교단일기 p23
- 신광호의 영화읽기 - 플란다스의 개와 엔젤 하트 p26
- 성명서 p31
- 논평 p32
- 학부모 알림란 p34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35
- 활동사진 p39
- 지부일정 p42
- 2월 회비 보고 p43



그 시절, 그 선생님

| 회원 편유화 (동구 수정동) |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 가리개가 하나 있다.
내사 마 테레비 쯔 불라케도 우리 집 텔레비전 가리개 때문에 못 본다 아이가”

이렇게 늘 말씀하시던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가끔 TV 앞을 가리면 생각난다.

선생님 댁 텔레비전을 가리는 물체가 뭘까?
수업 때마다 때를 쓰며,
“쌤에~ 갈쳐주이소! 와 쌤 집엔 텔레비전 가리개 때문에 TV 못 봅니꺼?”

깡마른 선생님에 비해 좀 많이 뚱뚱한 사모님이 주무실 때,
TV 앞에 누우면 그 부른 배 때문에 텔레비전 화면이 다 가려진다고.^^

언제나 사회시간은 이런 선생님의 입담으로 늘 재미있게 보냈다.

만화책 보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학생주임도 하셨기 때문에 말콤(모두)
다 뺏아서 거둬 두었다가 여학생들에게 다 돌려보라며
만화책 선물을 자주 하시기도 한 선생님.

이젠 팔순의 연세.
옛그제 까지만 해도 그 부른 배로 텔레비전을 가리던 사모님이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사모님을 보내시는 순간까지 20년 가까이 일주일에 세 번씩 꼬박꼬박
혈액 인공투석을 도우며 병수발을 하셨다.
아마 선생님의 정성으로 20년을 버티신 것이리라.
부부가 이 세상을 등지는 날까지 함께 해로함을 보여주는 것만도
본보기가 되어주셨다.

구수한 목소리로,

“유화야, 잘 지내제?” 하는 전화기 저 너머 소리가 아부지 같다.

학교 혁신을 위해서

정 광 필 (이우학교 전 교장)

2. 혁신의 주체를 분명히

1) 교장의 역할 : 학교의 비전에 기초한 조정자, 촉진자.

2) 비주류와 마음의 착한 싸움 자극하기 : 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전히 제일 큰 어려움은 교장 마음 사로잡기이고, 핵심주체와 나머지 비주류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악한 이 감정이 팍 튀어나오는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한 편입니다.

붕창 뚫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현장에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다가 보면 화가 치솟는 여러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늘 붕창 뚫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화가 난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제가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애들 개판 치는 것은 열 받잖아요. 사고치고 만나는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가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못한 책임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내 범생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 아이가 왜 저러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와 생활공간, 인식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내내 그 아이가 이해가 안 돼서 늘 싸우고 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과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죠. 그런 과정을 겪고 아이들을 바꾸어 내는 경험을 하고, 애들과 공감해가면서, 그놈을 싸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선생님들을 보고 화를 내는 구조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열을 받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 구조 자체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업연구회 차원에서 선생님들끼리 동료성을 갖고 하는 따뜻한 그런 기운을 나누는, 그리고 같이 일을 풀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동료성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학교가 통째로 바뀌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열 명으로 시작해서 그게 60~70%까지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가장 큰 변화가 사실은 그렇게 붕창 두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고 먼 산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 좋은 기법들이 있죠. 감정 코칭 받고 비폭력 대화법으로 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분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는 것이 안 된다면 겉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분들이 지난 세월 20년 30년 동안 교육 환경에서 찢겨졌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공

감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다려 주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젊은이들과 친척하지 않게 다가가기

그 다음에 요새 또 다른 새로운 부류인데요, 젊은이들하고의 부분은 제가 보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도 학교를 처음 준비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면서 일부러 애들하고의 호흡도 고려하고, 또 길게 보면 양로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젊은 선생님들의 비율을 1/3로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 젊은 선생님들이 (20대 후반~30대 초반) 꽤 있는데요, 특히 기피학교는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젊은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죠. 문제는 이 젊은 선생님들이 완전히 걸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요새 어떤 분들이 교직에 들어오고 있는지가 새롭게 읽혀지더라고요. 젊은 선생님들 보이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뭐가 옳은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뭔가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혁신적인 무언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정쩡한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인 참여는 절대 안 합니다. 겉도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등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대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을지 자세히 보면 우선은 서울기준으로 말하면, 뭐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능은 1 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사대나 교대를 들어옵니다. 그 중에 가장 범생이들이 그나마 교직을 통과합니다. 아마 연애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졸업하고 몇 년을 고생해서 고시를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동안 고생도 했으니까 휴식도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친구들 학교 현장에 가서 요즘 겁 없는 10대와 초등학교 5~6학년, 거의 동물에 가까운 중2애들을 어찌 상대할 수 있을지. 과연 애들이 왜 저러는지를 어떻게 '이해'는 가능할지가 걱정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해놓고 나면 그냥 젊은이들 탓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활발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과 만나는 핵심그룹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대개는 저도 그랬는데, 참 젊은이들 왜 저래?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 취향에 맞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소위 7080세대가 보이는 모습이 흔히 말하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면 '칙칙'하죠. 놀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뒤풀이 해봐야 술밖에 먹을 줄 모르는. 그런데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재미난 게 정말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니까. 노인네들이랑 놀러 다녀봐야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멀어져간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서 애들에게 다가가는 것과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젊은 선생님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돌아보면

1) 좋은 교육환경이 교육적인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우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한 포부를 갖고 어쨌

든 애들에게 좋고 최고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훈련시켜야 하고 교육적인 시설이나, 과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꽤 의미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8년 쯤 됐을 때 크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우학교가 2010년에 재정결합지원을 받게 돼서 중학교는 학비가 없고,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1.7배로 시작했다가 일 년에 적자가 4억, 5억씩 났죠. 그걸 메우기 만만치 않으니 결과적으로는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귀족학교 소리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역의 ‘있는 집 자식’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도 굉장히 더디고요. 그래서 6년 전에 성남 구시가지에 ‘함께 여는 교육 청소년 학교’라고 방과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의 중학교 1학년 중에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5명씩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지금은 이우학교 학생들의 구성이 다양하게 달라졌지만 초창기 6년 동안 부딪혔던 문제는 정말 있는 집 자식들은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쉬운 게 없죠. 그들의 욕망이 좌절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졸업해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어쨌건 먹고살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버둥 쳐봤자 취직이 힘들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10대가 요새 중요한 소비자 이니까, 10대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감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게임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하지만 공부는 안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 도전, 절대 안합니다. 흔히 말하면 무기력한 아이들이죠.

사고치는 아이들은 오히려 변화시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뻘질거리며 매사 무기력한, 그래서 자기 진로조차도 확정지으면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결정을 늘 유보하는, 그 아이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도 이우학교의 가장 큰 도전 상대는 있는 집의 뻘질이들입니다.

반면에 청소년 학교의 아이들은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문제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는데, 진짜 문제는 학교에 적응 못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학교를 그만 둘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간 다음에 대책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제자리를 잡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우학교의 여러 교육적 경험을 모아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있는 집의 무기력한 뻘질이들과 달리, 이 아이들은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도 안 걸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따뜻한 손길이 닿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우학교 아이들 상대로 2, 3년 해야 겪는 변화를 이 아이들은 잠깐 사이에 빠르게 깨어났죠. 우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없는 아이들 도와줘야하니까’, ‘시혜적으로’, 그런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인재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이 그 좌절과 상처를 딛고 일어난다면, 깨어난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그 힘으로 사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우학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다양해 졌지만,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인프라가 많고 잘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교육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면, 아니 거꾸로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했다면 더 쉬웠을 것이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지역이 어렵다’, ‘아이들이 개판이다’, ‘부모가 어떻다’, ‘학교의 제도가 뭘 못하게 한다’, ‘교육청 간섭이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조건이 훨씬 교육적이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 뺑질어들’이 제일 바꾸기 어렵고, 그래서 그놈들을 제대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온실을 부수고 험한 도전을 하게 만드는 노력들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다 죽겠죠.

- 긍정적 피드백이 조직을 살리고, 잔소리하는 교장이 학교를 가라앉힌다.
시시콜콜 온갖 일 챙겨서 일 많이 하는 교장이 교직원들 놀게 한다.

2) 모든 선생님이 훌륭하면 안된다.

끝으로 이야기할 것은 제가 학교를 떠나고 난 후에 깨달은 것, 그래서 늘 아쉬운 부분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유로 말씀드리다면 애들에게는 다양한 선생님이 더 중요합니다. 못된 선생님, 독한 선생님, 개기는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바꾸는 차원에서 모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게 하려고 핵심주체를 확대하려다 보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것 하다 진 다 뺏니다. 그 선생님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들 험한 역할을 하는 분이예요. 그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미워하면 학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 학교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또 이 친구들이 추진하는 사업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검증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완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끝)

1월 22일 부산교육포럼에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 - ‘부산형 혁신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발제문 중 정광필 선생님의 글을 2월, 3월 두 번 나누어 실었습니다. 좋은 글을 신게 해 주신 정광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

김소영 회원을 만나다



3월의 회원 탐방 주인공은 김소영 회원이다.

김소영 회원은 현재 연지동에서 3남의 어머니로 작년 총회에 아이들과 참석하여 참학과 더욱 가까워진 회원이다. 첫째 아들을 얼마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로, 오늘 회원탐방을 진행하실 편국자 지부장님과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 평소 상근자 혼자 썰렁하던 참학 사무실을 후끈 데울 것 같은 느낌으로 인터뷰를 시작한다.

(이하 '편국자님은 편, 김소영님은 김'으로 표기합니다.)

편 :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총회 때, 그리고 올 1월 회원 만남의 날에 세 명의 자녀와 함께 했는데요, 지금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김 : 4, 6, 8세 남자아이들이고, 첫째와 둘째 터울이 연년생에 가까워서 첫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둘 다 신경 써야 하는데 첫째에게 충분히 신경 못 쓴 것 같아, 왜 이렇게 육아에 전념하는데도 힘들고 마음이 조금할까 돌아보던 중, 덜컥 셋째를 가졌지 뭐예요. (일동 웃음^^) 상황을 받아들이고 키우면서, 예민한 첫째에 비해 넉넉한 셋째의 성품을 겪다보니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둘째와 셋째 터울이 2년에 가까워 그렇기도 하구요.

편 : 다행이네요. 아들 셋이면 정신이 없을텐데, 여유가 생기다니 부럽네요.^.^ 이렇게 여유가 생기기까지, 남편의 역할도 컸을 것 같은데요.

김 : 예, 맞아요. 남편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육아를 함께 하면서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편 : 남편의 역할이 크네요. 현재, 육아만 하시는지요?

김 : 아니요,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 영어 프로그램을 몇 군데 맡아 오후에 세 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 아이 같아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필요 이상으로 정렬시키고 꾸짖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요. 이것도 사교육인데 싫어서 조금 찢리기도 하고,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이 영어 책 읽어주셔도 되는데 괜히 내가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많아요.

편 : 정말 소영 어머니는 아이들 편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분이네요. 소영님의 이런 마음을 살려서 아이들과 즐겁게 영어 동화 읽기를 잘 하시겠는데요. ^^ 그런데, 참학은 언제 어떻게 가입하게 되었는지요?

김 : 작년 10월예요, 그동안은 아이들 프로그램을 많이 접했는데 부모 프로그램을 찾던 중 인터넷 검색으로 참학을 발견하고 김정숙 전실장님께 전화로 문의 드리고 가입했습니다.

편 : 보통은 타인의 권유로 입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영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분이네요. ^^ 참학 회원님들 연령이 50대가 많은데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또 3,40대 젊은 어머니들을 회원으로 모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 :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어요. 가정, 사회 경험이 많은 50대 회원분들에게 배울 점이 많지요. 젊은 엄마들 프로그램은 소모임을 통해 조금씩 찾아가고 천천히 알려지면 될 것 같아요. 교대 앞 어린이 서점 '책과 아이들'에서 빛동화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는데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더군요. 참학에서도 곧 독서 소모임을 할텐데, 참학 교육관에서 빛동화 읽기모임을 저녁에 해 보면 어떨까요?

편 : 좋은 생각입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지역 도서관이나 참학 회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 추천도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진행하다보면 나중엔 참학 교육관에서도 빛동화 읽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소영님 같이 아이들 참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회원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
얼마 전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어려워하진 않나요?

김 : 아이는 학교가 좋대네요. 쉬는 시간에 운동장 나가도 되고 자유롭다는데요.(웃음)
어린이집은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게 번거로웠나봐요.

편 : 다행이네요. 학기 초라 학교운영위원회 선출하는 가정통신문도 보내올 텐데, 잘 보시고 운영위원 맡으시면 학교와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운위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구요. 아이들 체험학습은 어떤 걸 주로 하나요?

김 : 실은 예전에 아파트 살다가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 시민공원 예정지인 연지동의 주택으로 얼마전에 이사

왔어요. 어린이대공원, 시민 도서관, 진구청 예술학교, 부산 영어도서관, 국악원이 10분 내로 해결 되거든요.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소문난 금성 초등학교가 있는 금정 산성마을은 아무래도 무리고, 생태학교나 부산대 부설 어린이집이 있는 장전동은 아빠 직장과 멀어서 연지동으로 왔어요.
이사 와 보니 아이들이 주택을 아주 좋아하네요. 대신 놀이터가 없어 매번 새 친구를 사귀어야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잘 적응하겠지요.

편 : 그렇군요. 아이들과 잘 놀기 위해 주택으로 이사까지~ 대단하십니다. ^^ 제가 참여하는 단체 중에, 교육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거기 젊은 엄마의 아이디어로 시민공원 안에 '새집 만들기'를 공모했어요. 아이들이 새둥지를 만들어 주면, 새들이 둥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할 수 있겠요.

김 :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연지동에 이사 잘 왔네요. ^^

편 : 아이들 위주로 살다보면 가끔 내 시간이 없는 게 아쉽다든지, 후회된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김 : 대체로 아이들 위주로 살긴 하지만, 그건 또 저의 일부분이라고 여겨요.

편 : 그렇지요. 법륜스님 말씀이, 아이들 키울 때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집중하라”고 하셨다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 :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할 때가 있지만, 무조건 따라 다니면서 다 해주는 건 좋은 양육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8세 첫째아이가 짐이 많아서 도와주려니까, “엄마, 내가 해보고, 안되면 도와줘.”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항상 제가 주의를 줬던 애기인데, 어느새 제가 아이가 되어있고, 아이는 성장한 거였어요. ^^ ‘나는 아이를 의존하게 안 만들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네요.

편 : 모든 부모들의 딜레마가 아닐까요? ^^ 제 경우를 보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옷 개는 습관부터 들인 작은 애는 공부도 스스로 하는데, 큰 아이는 지금도 밥을 차려줘야 먹는 걸 보면, 어릴 때부터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하도록 만들 걸.. 후회합니다.

김 : 저도 아이가 옷을 스스로 골라 입는 걸 보면 뉘뉘야 하는데, 그러면 또 옷장 정리가 안되니까 아직은 제가 골라주고 있지만, 스스로 꺼내 입을 수 있도록 옷장을 아이가 편하게 꺼내 입을 수 있게 정리하려고 시도 중이에요.

편 : 저는 사교육을 하면서 양육하다 보니,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교육에도 개입하는 바람에 결국 아이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와 내가 서로 다르다는 걸, 문제가 터지고 알게 됐지요. 부모 욕심이었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르단 것을 이제야 인정하게 됐네요.

김 : 저는 7년 아이 키우면서 육아서 읽고 보육, 교육이 다 연결되는 장거리라서, 미리 사교육에 욕심 안 부리

고 친구청 예술학교의 미술만 보내요. 그것도, 일반 미술학원 아닌 독창적인 그림을 유도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보낸 건데요. 나는 느긋해서 급할 게 없는데 첫째 아이 성향이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하고 승부욕 강하고 아이 스스로 실수를 용납 안 하니 이를 어떻게까요?

편 : 소영님도 승부욕이 강한가요?

김 : 아이 아빠가 승부욕이 있지요. 저는 욕심은 있지만 욕심을 부린다고 재미나 성취가 있는 게 아니란 걸 아니까 부리지 않지요.

편 : 서천석 박사 강의 들으셨듯이 아이의 천성에 맞는 학습방법을 찾아야지요. 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은 아이는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발전하겠지요.

얘기 듣다보니 소영님은 참 깨어 있는 어머니네요. 직장 다니다보면 내 패턴에 맞춰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것 보다 아이의 패턴에 맞춰 키운다는 게 진짜 부러워요.

김 :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네요. 모든 게 다 좋을 수 있나요. ^^ 아이 아빠는 제가 일하러 가길 원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돈은 언제든 번다. 아이 키우고 하겠다고. 제 성격이 여유로워서 그런가~ ^^

편 : 첫째 아이- 성준이가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나요? 아이의 꿈은요?

김 : “성준이 꿈은 뭐야?”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는데, 성준이는 “비행기 타고 사막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눈물) 새로운 거 도전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길 원하니까, 제가 개입하고 싶진 않고, 제 길을 스스로 찾아서 행복한 사람요.

(글 : 조효정)



영화 “변호인” 을 보고

수영초등학교 6학년 조 현 준

엄마와 동갑내기 사촌과 변호인을 보러 갔다.
맛있는 팝콘과 주스를 마시며 아무런 생각 없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누구에 관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들어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돈만 밝히던 한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현실을 알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단골 국밥집 대학생 구해주는 내용이었다.

아무런 죄 없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상처 입으며 자백해야 했던 그 당시의 말도 안되는 민주주의가 가슴 속 깊이 느껴졌다.

그 변호인은 감옥까지 갔다 오게 되었고 훗날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런 아픔을 겪으며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고 더욱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 1월부터 시를 보내오던 현준이가 일기 글을 보내왔어요.

가족들과 〈변호인〉을 보고 민주주의를 알았다는 현준에게 우리 어른들은 요즘 민주주의는 어떠하다고 말을 해 줄까요? 저 어린 꿈나무가 진정한 민주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어른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겠어요.

이 글은 2월 25일 이일권 부산시 교육위원이 주최한
〈학생들 스스로 만드는 토크파티〉에 초대된 청소년들의 소감문입니다.



토크파티를 무사히 마치며

이 상 민 (동래고 2학년)

처음 사회 선생님께서 토크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받았을 땐 꽤 망설였습니다.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교육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끝에 토크파티에 참여한 이유는 말 잘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들과 함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도전하다보면 언젠가 내가 부족한 부분도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결과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사전미팅 때 저의 발표 주제와 내용이 다른 발표자 두 친구와 똑같이 겹치는 바람에 아예 저희 팀 전체의 발표 방식을 연극으로 바꾸게 되었고 월요일 하루동안 연극을 부랴부랴 만드느라 정말 막막하기도 했고 고생하기도 했지만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성하려 노력했던 게 끝에 보람도 있고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두 친구가 느낀 점보다는 더 하고 싶은 이야기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은 짧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질문이 없는 수업에 대해서였습니다. 평소에 저는 수업시간만 되면 질

문거리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시간에는 학생 수도 많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마음껏 질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그저 니 생각대로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께서 그 교실에 있으면 그런 말을 못하실 정도로 말이죠.

심지어 마치고 질문을 하면 귀찮아하시는 선생님, 이것도 모르냐며 무시를 하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다시는 질문을 하고 싶지 않더군요. 왜 이런 상황, 분위기가 만들어 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받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줄을 세우려면 문제를 충분히 낼 만한 진도를 나가야 하고 그렇게 진도를 쫓 나가다 보면 왜 이걸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질문할 시간도 없고, 배우는 내용과 다른 생각이 생기면 시험에서 완전히 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과 프레젠테이션, 에세이쓰기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발표할 수 있는 수업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 제가 그런 말하기가 정말 약한데요, 그래서 이런 토크파티에 참여한 것이기도 하구요, 저희의 발표가 급하게 어설픈 연극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이 충분히 녹아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여러모로 아쉽기도 했지만, 저 말고도 다른 친구가 제가 말하고 싶은 바를 프레지를 사용해 똑같이 말해준 친구가 있어서 크게 동의했고 반가웠습니다.

끝으로 이 토크파티를 주최해주신 이일권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위원님께서 자리에 참여해주신 만큼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고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무대에 올라가서는 긴장도 하고 어색한 연기(..)로 제대로 잘 하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점은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토크파티를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제 2회 토크파티에 또 한번 참가할지는 사실 미지수지만 이러한 토크파티에 참가하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고 기회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교육에 대해서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그 때 다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우여곡절 많았던 교육토크파티. 후련하기도하고 아쉽기도하고.. 재밌었습니다!

소감문

장 수려 (부산사대부고 1학년)

처음에 이 발표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무료한 방학이었고, 마땅히 대외활동이라는 것을 한 게 없어서 신청했었습니다. 사실 이 발표를 처음 알았던 당시만 해도 놀랐습니다. 논리력도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상상만으로 교육을 말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상해서 이 현실이 얼마나 바뀔까 싶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은 마냥 놀고 싶어 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이 되어 보니 제가 섣불리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공부 싫다, 놀고 싶다.” 고만 말하기에 저는 모두가 공부하지 않고 온종

일 노는 학교를 바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들 일방적인 학습이 아닌 소통하는 학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다면서 모두가 참된 공부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발표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발표를 얼마나 들어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들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정말로 제가 원하는 학교에 대한 발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그대로 시행하려면 지금의 야자와 비슷한 시간에 마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기존의 교과목 부분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과목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귀찮아 보이는 일까지 확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발표하면서 청중들을 바라보니 모두가 제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친구에게 장황하게 설명했다면 무시당하거나 이상한 애 취급을 받을만한 터무니없는 소리였는데도 고개를 끄덕이는 학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초보자인지라 지루하고, 말 더듬고, 했던 말 또 하고, 발음이 꼬이는 데도 분위기만큼은 대단한 연사를 초대라도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것이 참 귀찮았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이걸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며 마감에 쫓기듯 발표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청중들을 보니 조금 더 내용을 재미있게 만들었다면, 조금 더 발표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하고 후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1회로 발표를 끝내면 될 줄 알았는데 '다음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어느새 다음 발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시련이지만 저는 누군가의 앞에서 말하기를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 날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그 감정이 커집니다. 말한다고 해도 많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정말 굳은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도 꼭 참고 넘겨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고 혹여 실수라도 할까 혼자서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못하다가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잘못 넘겨도, 입이 바짝 말라 발음이 꼬여도, 허술해도 모두가 괜찮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아주었습니다. 아무도 실수한 것에 대해 웃지 않고 터무니없는 발표에도 호응해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자리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특히 교육 상상 토크를 하면서 왜 부산에서 이런 게 처음 시행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엄청납니다. 특히 시험기간이 되면 정말 내로라하는 교육 담당 전문가들을 제치고 가장 정확한 전문가가 됩니다. 'BEPA는 왜 하느냐. 어차피 학교에서 또 단어를 외우라고 주는데.' 라는 교육정책 비판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며 그들의 생각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같은 학생들끼리만 듣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들께 말해도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하자.' 라며 무시당했습니다. 고등학생, 하물며 이번에 나온 최연소 참가자인 초등학생도 자신의 목소리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입을 먼저 막아버리니 '미래의 꿈나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자랑스러운’ 이런 수식어를 붙인다는 게 지금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미래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면 저희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주고 어른들의 의견과 동등하게, 아니, 어른들의 의견보다 더욱 높게 평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대한민국에 살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이런 걸 굳이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시위하지도 않고 무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목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공부를 때려치운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만 더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일 뿐인데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달라고 한 것뿐인데도 어른들은 청소년의 입을 먼저 막아버렸습니다. 듣지도 않고 ‘너희는 이럴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막는 거야.’라며 지레짐작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기회가 매우 고마웠습니다.

이일권 의원님, 부산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어른’께서 저희의 닫힌 입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 어디 마음껏 말해봐라. 다 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가장 앞자리에서 한 시간 반 넘게 같은 자세로 저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일부 학생들만이 아니라 부산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한 번쯤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고 쌓아 두기만 하면 화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가뜰이나 지나친 입시로 스트레스받고 있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번 1회가 잘 되면 이 ‘교육 상상 토크’ 파티는 꼭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1회를 잘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모두가 조금의 답답함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표 때와 같이 소감의 마지막을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학생의 의견이 어른의 의견보다 더 큰 위력을 발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교육은 발전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이란 곳에 들어가보니, 대학에 가서 친구도 보고 선배도 보니.

김 소 원 (부산가톨릭대학교 2년)

안녕하세요?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저는 1년간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대학을 처음 들어가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수하게 공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내 세상이다'하며 마음 놓고 놀려는 사람도 있고, 취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을 지라도, 저마다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있고, 가식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관계는 다가가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대학 입학 후 너무 잘 통해 친해졌던 친구는 서로의 진짜 성격과 모습을 알고 멀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겪다가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사회라는 곳은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듯, 자신이 한 일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고, 인간관계가 하나의 큰 사회를 형성한다는 말이 불현듯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선배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기회는 모두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그런 흔한 기회도 잘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부와 명예를 공짜로 누리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스펙을 가꾸어 왔느냐, 인맥을 얼마나 많이 쌓아 왔느냐에 따라 취업하는 곳이 천차만별이고, 졸업하기 전 실습을 나갈 때 눈에 띄어 졸업 전에 대학병원에서 취업 제의를 받는 선배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아무리 취업 이야기를 늘어놓아 보았자,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선택의 폭은 굉장히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 사회는 성립이 됩니다. 그 중에 좋은 위치,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간 재미있고 신나는 일도 많았지만 과가 과이

니만큼 진지한 자세로 많은 것들을 멀리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좋은, 큰 직장을 원한다면 그 직장의 크기에 맞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와 닿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1년 생활을 하며 이렇게 느꼈는데 2,3,4학년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점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대학을 가기 위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무조건 좋은 대학을 닦달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지금까지와의 공부와 다르게 한 분야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공부이니 만큼 그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유명한 학교 아무 과나 나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적성에 맞는 과를 찾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능력을 올려 성공하는 편이 훨씬 더 빨리 성공하는 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 봅니다.

우리 참학 부산지부 회원의 딸입니다. 목표한 대학교가 물리치료학과였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과감히 선택하고 봉사활동 점수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학교의 색깔을 정녕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과를 스스로 선택하여 일찍이 부모로부터 독립의 의지를 보였다는데요. 당찬 학생의 의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들의 아이를 위한 치맛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늦깎이 학부모 김경화

어느 날 참학 상근자님으로부터 신입회원 글을 하나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글재주 없는 제가 이 글을 쓰니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라며 (우리 딸아이도 엄마 닮아서 글쓰기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기쓰기 숙제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2학년 담임이 철저하게 시키는 타입이라는데 어찌해야 될는지 ^ ^;;), 신입회원으로 들어와서 느낀 점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작년 한해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고, 참학에 회원가입한 계기에 대한 것으로 제 마음대로 내용을 바꿔서 적었으니 그것도 양해해 주시길 ㅎㅎ

빠른 사람들은 학부모를 졸업하는 45살이라는 늦은 나이인 작년에야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드디어 학부모가 되었다. 그 뿌듯함이란……. 버럭 잘하고, 다정하지도 못하면서 억압적인 엄마 밑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건강한 아이로 잘 커 준 딸아이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아이가 안쓰러워 가슴이 쓰라렸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딸아이뿐 아니라 반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학교가 재미있고 신나는 곳으로 생각하고, 공부도 재미있어 했다. 하지만, 매주 치러야 하는 받아쓰기와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줄넘기(학교가 등급을 정하는 곳도 아닌데, 받아쓰기도 급수표라는 것을 내어주면서 단계를 정해놓고, 줄넘기도 인증시험이라는 것을 치는)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항상 애정 어린 눈으로 딸아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참학과 인연을 맺게 해준 교장공모제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현직에 계신 교장선생님이 1학기를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시고 후임 교장선생님이 오셔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장선생님을 모실 것인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가정통신문으로 보낸 것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장공모제를 찬성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서 알고 지내던 학교 운영위원회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보니, 전체 학부모의 찬성은 높았지만 학교운영위에서 공모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다음 날 교장공모제에 대한 운영위 결과가 학교게시판에 공지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왜 운영위에서 교장공모제를 반대했는지 알기 위해 학교 행정실에 가서 그날 회의록 열람을 신청하니, 민감한 사안이라며 누가 어떤 발언했는지는 알 수 없도록 한 후 회의록을 보여주었다. 내용을 확인 해 보니, 설문조사에 응한 80%이상의 학부모 중에서 90%이상이 교장공모제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며, 그 이유 또한 회의록에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물론 교장 공모제에 대해 교사는 반대의견이 높았다. 그래서 교원위원이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학부모위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운영위에서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절대 반대의 결과는 나올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혼자서 흥분하고 열을 내다가 그때 문을 두드린 곳이 참교육학부모회이고, 다정하게 상담해주는 신 김정숙 실장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회원가입까지 하게 되었다.

그 뒤 회원모임 날마다 다른 일이 있는 관계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다가 올해 신입회원 만남의 날에 신입 회원도 아니면서 뻔뻔하게(?) 신입회원인 것처럼 참석하면서 참학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첫모임은 지금까지 주변 엄마들과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어하는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포근했다. 모임을 준비해 준 조효정 상근자님과 부지부장님 등 선배회원님들의 따뜻한 환영도 감사했다.

참학에 와서 보니, 지금은 조직 자체가 조금 정체기를 맞고 있어서, 젊은 세대의 피가 새롭게 수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도 젊은 피가 아니라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

그러나 이제 학부모에 입문한지 1년밖에 안되었고, 앞으로 둘째까지 고등학교를 마치려면 13년이라는 세월을 더 학부모로 살아가야 하니 어느 누구보다 젊은 피라는 자부심에 당당해지기로 했다.

이제는 그냥 학교에만 아이를 맡기고 방관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도 함께 아이의 교육에 참여하는 시대로 바뀐 것 같다. 내 아이만의 성적을 높이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엄마가 아닌,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 자체가 좋아져서 우리 아이들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극성엄마가 되리라 다짐한다.

우리 함께 엄마들의 건강한 치맛바람을 일으켜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성 장

이 시 영

바다가 가까워지자
어린 강물은 엄마 손을 더욱 꼭 그리쥘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다
엄마 손을 아득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이아
이제부터는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다.
엄마 강물은 새벽 강에 시린 몸을 한번 뒹치고는
오리처럼 곧 순한 머리를 돌려 반짝이는 은어들의 길을 따라
산골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삼월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교생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바다로 나가는 어린 강물들이
저마다 반짝이는 물살이기를 바랍니다-

도종환님의 글 중에서



봄이 피어나고 있네요. 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겠지요. 동시 한편 덧붙입니다

꽃 씨

최 계 락

꽃씨 속에는
파아란 잎이 하늘거린다.

꽃씨 속에는
빠알가니 꽃도 피어서 있고

꽃씨 속에는
노오란 나비떼가 숨어 있다.





겸손과 배려 그리고 사랑을 배우다

눈꽃과도 같은 하얀 백발의 숏카트가 잘 어울리는 J 어르신,
매주 미술심리치료 수업시간 마다 제일 빨리 이해하며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등생인
어르신이다. 동그렇게 둘러앉아 집단프로그램을 할 때 나와는 대각선상에 앉아 계
시지만 동그란 눈동자는 유별나게 반짝이고 하얀 치아를 내비치며 웃는 모습은 수
줍은 소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J 어르신의 그림을 보고 마음 나누기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미소가 지어진
다. 어르신 J의 그림은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잔잔한 감성이 그려져 있다. 당연히 어
르신 J에 대해 나의 자연스러운 칭찬은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 난 어르신 J로부터 겸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느끼고 돌아왔다.



“선생님!! 저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오른손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더 칭찬해 주셔
야지요, 저 보다 그 분들이 더 훌륭하지요.”

살포시 내 손을 잡으면서 옆에 계시는 어르신을 가리키신다.

10년 전에 뇌경색으로 오른손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H.

처음 몇 년 동안은 혼자서 식사 뿐만 아니라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왼손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그림까지
그리게 되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어르신 H,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다.

나의 아버지.

7년 전, 뇌경색으로 오른쪽이 마비되어 언어장애를 같이 앓고 계시다.

늘 건강에는 자신있다 하시며 활발하게 움직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 이제는 아버지도 왼손으로 생
활에 무리는 없지만 언어장애는 호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며 생활하시는 아
버지의 모습을 난 이곳-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모습에서 찾게된다. 그래서 난 이곳에 미술치료수업 올 때
는 내 부모님을 대하는 아련한 맘으로 찾게 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느 새 내 마음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
음 한가득 담아 돌아오고 있었다.

아직까지 바람이 차갑다.

오늘은 모짜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 눈꽃처럼 뽀얀 멋스런 백발의 어르신 J, “선생님 여
기가 천국이에요, 밖은 추운데 여기는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음악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주고, 마음이 너무 편안
해요” 그러자, 옆에 계시는 어르신들 하나 같이 한 말씀 씩 거드신다.

“맞다, 맞아. 여기가 천국이야! 너무 좋아!” ^^

천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도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도, 내가 있는 곳이 한없이 편안하고 내가 먹는 소박한 음식이 그
무엇보다 맛있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나눔에 안식을 느낀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리라.

새 학교에서 새 학년을 맞으며

— 〈백범일지〉와 〈만인보〉 읽기를 권함 —

노영민(동래고 교사)

학교를 옮겼다. 저번이 남녀 공학이고 왕복 70여 킬로미터 거리로 출퇴근에 약 3시간 가까이 걸리는 학교였는데 비해, 이제는 남학생만 있고 왕복 14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다. 예전 내가 고등학교 입시를 볼 때 이 학교 원서를 사러가다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이종 형 말에 마음을 바꾸어 다른 학교로 진학했던, 인연이라면 인연이 있는 학교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집에서 가까워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다행이라고 축하해 주었다.

학교 옮기는 일은 나를 가슴 설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익숙한 동지를 떠나 낯선 곳으로 내팽개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긴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선생 노릇 벌써 몇 년인데’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주는 중압감에 보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힘들어서 전근을 가야 할 무렵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나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니 어쨌든 적응을 서둘러야 한다. 아 어떻게 하지?

고심하고 있는데 아내가 보낸 카톡 문자를 받았다. “백범일지 다 읽었어요. 좋은 책 권해주셔서 고마워요. 후반부 나의 소원을 읽을 때 전율이 내 몸을 감싸네요. 다시 읽고 싶은 책이에요” 아 그렇지! 올해 아이들과 이 책을 읽으면 되겠네. 하나의 과제를 풀었다는 상쾌한 느낌이 진하게 내 몸을 감쌌다. 고백하자면 나는 이 책(도진순 주해, 돌베개)을 작년에 처음 읽었다. ‘고전이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거의 아무도 제대로 읽지 않는 책’이라는 말이 있다던데, 아무튼 〈백범일지〉는 내게 분명 그랬다. 뒤늦게 이 책을 읽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자서전이 우리에게 있었다니. ‘아이구 덩신아, 만날 식민주의, 사대주의를 비난하던 네 놈이 바로 그 전형인 놈이다.’ 싶었다. 그간 나는 체 게바라, 호치민 얼굴을 새긴 옷을 아무렇지 않게 입 듯 이현상, 박진홍 같은 좌파 독립운동가의 초상을 새긴 옷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게 될 때 우리 역사는 한 단계 크게 비약할 거라는 생각을 해온 터였는데 말장난에 불과했음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간디, 채플린, 닥터 노먼 배순, 에드가 스노 같은 외국 사람들의 평전이나 자서전은 제법 찾아 읽었으면서도 정작 우리 민족의 스승들의 삶에는 무심했던 것이다. 길게 이야기 할 것 없을 것 같다. 나는 그 후 이 책을 만나는 사람마다 권했고 책을 사서 선물하기도 했다. 아내는 오늘도 이런 말을 했다. 〈백범일지〉를 읽은 이후 우리 독립 운동가들이, 우리 역사가 너무 고맙

고 자랑스럽다고, 지금 사는 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서럽기도 하다고.

새 학년 3월에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아이들과 읽을 것이다. “궁핍한 배움길”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양반에게 무시당하는 집안 어른을 본 뒤 글을 배워 과거에 급제해 무시당하지 않는 양반이 되겠다고 발심한 백범이 아버지를 졸라 서당에 보내달라고 한다. 거둬 주는 아들의 청에 못 이겨 어려운 가정 살림에도 백범 아버지가 선생을 모셔 서당을 여는, 눈물겨운 향학의 장면이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선생이 오시는 날, 나는 너무 좋아서 머리 빗고 새옷 입고 마중나갔다. 저 앞에서 키 큰 쉰 살 남짓의 노인이 오신다. 아버님이 먼저 인사하신 후, “창암아, 선생께 절하여라”고 말씀 하신다. 공손히 절하고 나서 선생을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나 하느님처럼 거룩해 보였다. 이리하여 우리집은 사랑에 공부방을 열고 선생님 식사까지 봉양하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열두 살(1887년)이었다. 나는 개학하던 날 ‘마상봉한식’(馬上逢寒食)이란 다섯 글자를 배웠다. 뜻은 알든 모르든 관계 없이 너무 기뻐서 밤에 어머니의 매갈이를 도와드리면서도 외우고 또 외웠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선생님 방에 가서 글을 배우고, 밥구력을 메고 멀리서 오는 동무들을 가르쳐 주었다.

향학에 대한 열정을 그려놓은 많은 글들이 있겠지만 그 간절함에 있어 이 글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글은 또 어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선생이 서당을 떠나게 된 날의 장면이다.

어느날 내가 아침도 먹기 전에 그 선생님이 집에 와서 작별을 고하셨다. 나는 정신이 아득하여 선생님의 품에 매달려 목놓아 울었다. 선생님도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작별하고 나서도 나는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였다.

아 거룩하다 배움의 열정이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며! 3월에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가 1년 학교 농사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수십 번 맞는 3월이지만 지금도 나는 가슴 설레면서도 두렵다. 좋다. 이번 3월은 두렵기보다 설레는 3월이 되게 할 자신이 있다! 이 글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 아이들은 틀림없이 높은 향학의 의지를 불태울 것이다. 3월이 어느 때인가. 책도 새 책, 공책도 새 공책, 1학년들은 교복도 새 교복, 학교도 새 학교, 선생도 새 선생 아닌가. 학생들의 굳센 다짐에 이 글은 분명 기쁨을 얻어 꺼지지 않는 배움의 불길을 더욱 이글거리게 할 것이다.

혹시라도 3월을 망쳤다 하자. 그렇더라도 백범의 생생한 삶의 기록인 〈백범일지〉에는 수많은 명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면 언제든지 만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열아홉에 동학의 소년 접주가 되어 동학농민전쟁을 치르는 일, 스물두 살에 국모 시해에 대한 복수 의거로, 조선 사람으로 위장한 일본



군인을 맨주먹으로 처단한 치하포 사건, 그 의거 후 투옥되어 역사적인 신문을 치르고 사형수가 되어 옥중 생활을 하는 기록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때 백범은 인천 감영에 투옥되는데 그의 의로움에 감명 받은 인천 사람들, 아니 대한 제국의 뜻있는 인민들이 남녀노소, 신분 불문하고 백범의 소위 ‘광팬’이 되는 장엄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글들을 시시 때때로 꺼내어 아이들과 읽으며 울고 웃을 것이다. 수업 중 졸든가 떠드는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야단을 치기보다는 조용히 다가가서 이 책의 백미인 〈나의 소원〉을 포함한 여러 명장면을 깊이 읽게 하면서 공책에 정서하게 할 것이다. 성의 있게 잘 써 오면 어깨를 몇 번이나 두드려주고 깊은 포옹을 나눌 것이다. 그리하여 〈백범일지〉의 책읽기 동지가 된 것을, 역사의 길에 우리 함께 들어섰음을 축하할 것이다.

때에 맞추어 시를 한 편 읽는 것도 좋겠지. 그렇지 공부하는 데는 목표가 뚜렷해야겠지.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도 좋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스폰지 같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렵지. 그래 심호택 시인의 “똥지게”가 좋겠어. “우리 어머니/ 나를 가르치며/잘못 가르친 것 한 가지/ 일꾼에게 굳은 일 시켜놓고/봐라/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저렇게 된다/ 똥지게 진다”가 좋겠네. 스스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을 폄훼하고 노동자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참된 노동자가 되어 모두가 두루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한 몫 하겠다는 생각을 시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 브레히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또 어떨까?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존재, ‘지 혼자 잘 살면 뭐 재민겨’ 하는 전우의 선생님의 생각을 아이들과 나누어야지. 그렇네. 교실은 늘 청결해야겠지. 이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도 미미하게 산문적으로 말하기보다 시로 그 알갱이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 고은 선생의 좋은 시가 있지. 〈만인보〉 4권의 “외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 한번은 어린 나더러 말했다/봐라 마당 잘 쓸어놓으면/마당이 웃는다/마당이 웃으면/울타리도 웃는다/울타리 나팔꽃도 웃는다” 이 구절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 청소 잔소리는 아무 필요가 없을 거야. 사실 〈만인보〉 전 30권은 삶의 지혜를 깨치게 하는 무궁무진한 시의 보고지. “머슴 대길이”는 ‘위대한 평민’의 한 전형을 이루는 절창이야. 어디 이것뿐인가. 〈만인보〉에는 근 4천에 이르는 독특하면서도 전형을 이루는 인물들이 창조되어 있으니 내 새 학교의 2014년도 수업은 이것으로 끝! 어디 이것뿐이겠어? 수업 자료야 천지 빼까리 아니겠어? 하지만 지금도 불안하다. 구슬이 서 말 있으면 뭇해? 꺾어야 보배가 되는데 ...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시대 반영의 두 가지 시선 〈플란더스의 개〉와 〈엔젤 하트〉



1. 날것 그대로 드러내기 또는 상징과 비유로 축약하기

책이나 영화를 포함한 모든 텍스트를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텍스트의 내용에 드러난 특이 사항 하나하나를 인과적 관계로 분석하며 통찰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텍스트 전체를 상이한 다른 텍스트와 대비적으로 통찰하는 방법이다. (들뢰즈의 충고대로) 전자는 추리 소설 읽듯이 꼼꼼하게 읽어야 하고 후자는 공상과학소설 보듯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영화 역시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생생한 묘사에 치중하는 구상화적 영화가 있고, 은유나 환유의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비구상화(추상화)적 영화도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절묘한 풍자와 위트를 곁들여 생생하게 현실을 묘사한 봉준호의 수작(플란더스의 개)와 인과관계가 절연된 채 혼란과 광기 속에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현대 미국판 파우스트라 할 수 있는 알란 파커의 문제작 〈엔젤하트〉를 대비시켜 시대의 상황은 어떠한 방법으로 영화 속 시공간에 재현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2. 생생한 날것, 치밀한 시선 〈플란더스의 개〉

봉준호가 가장 잘 만든 작품은 〈살인의 추억〉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그의 장편 데뷔작 〈플란더스의 개〉이다. 이 영화에 전개되는 일상의 세밀한 묘사는 대한민국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그냥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함께 숙식을 하면서 바로 옆에 일어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다. 어쩌면 봉 감독 스스로 직접 겪었

던 사건을 재현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리얼하다.

대략의 줄거리 :

조용한 중산층 아파트, 백수와 다름없는 시간강사 고윤주(이성재 분)는 개소리에 관히 예민해져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소리를 들어보고 천장에서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지만 개소리의 진원지를 알지 못한다. 할 수 없이 평소대로 버려도 아무도 안 주워갈 슬리퍼에 츄리닝을 입고 밖으로 나가 분리수거를 하고 터덜거리며 들어오던 중 바로 옆집 문 앞에 서 있는 강아지를 발견한다. 윤주는 그 개를 납치, 지하실로 뛰기 시작한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지하실에 가둬버리는 윤주.한편 아파트 경비실엔 경리 직원 박현남(배두나 분)이 있다. 그날도 지루하게 낱말 맞추기나 하고 있는 현남에게 꼬마 슬기가 뽀돌이를 찾는 전단을 가지고 온다. 온 동네에 전단을 붙이는 현남. 어쩌면 교수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안고 한 잔 한 윤주. 집에 돌아와 임신한 아내의 배에 대고 속삭이고 있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 급하게 달려 나간 아파트 사방에 강아지 찾는 전단이 붙어있고 이렇게 써있다. “특징: 성대수술로 짖지 못함”. 그러나 지하실의 강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신경질적으로 짖어대는 개의 주인이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의 강아지임을 알게 된 윤주는 호시탐탐 그 개를 노리는데...점점 늘어가는 강아지 실종사건. 사건이 마구 번져 가는 듯 보이던 어느 날, 친구 동녀에게 들은 현남은 망원경을 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건너편 옥상에서 한 사내가 개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다. 용감한 시민상을 타서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이 꿈인 우리의 현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동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사내를 쫓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에는 개가 총 3마리 등장하는데 이 개들은 모두 주인과 ‘플란다스의 개’만큼 각별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등장한다. 첫 번째 개는 ‘씨추’종이다. 그 개의 주인인 초등학교생에게 자기의 개는 헤어진다면 자살이라도 하고픈 느낌을 자아내는 애인과 같은 존재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치와와의 주인인 한 할머니는 그녀의 개를 ‘아가’라고 부르며 그녀의 개가 죽자 따라서 죽는다. 마지막 세 번째 푸들의 주인인 윤주의 아내는 자신의 개를 ‘우리 순자’라고 부르며 남편보다 더 아낀다. 여기서의 개는 모두 개의 주인에게는 삶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당사자가 아닌 몇몇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혐오의 대상물이다. 동화 ‘플란다스의 개’ 만큼 인간에게 소중한 개가 한국의 상황에서 때로는 식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통 부재, 소비 중심의 도시에서는) 없애버리고 싶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감독은 진실을 은폐 조작하는 현실을 은유나 비유없이 있는 그대로 재기발랄하게 풀어 나간다. 그냥 웃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현실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위증은 통하는데 고백은 통하지 않는 세상을 풍자와 위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지하실에서 경비원이 괴담을 푸는 변희봉의 연기는 한번 보면 영영 잊지 못할 최고의 명장면이다. (변경비가 습득한 죽은 개를 오로지 홀로 독점적으로 아파트 지하실에서 요리하려 하는데, 아파트 관리인이 와서 개를 나눠먹을 것을 요청한다. 그러자 경비원은 관리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끌기 위해 ‘보일러 김’에 관한 으스스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장면.)

영화 <플란다스의 개>의 일본어판 제목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이다. (영어 제목 역시 “Barking dog never bites”) 만약에 이 영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개’하면 그냥 ‘플란다스의 개’의 이

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제 그대로 <플란다스의 개>라고 제목을 달지 않았다. 혐오 납치 유기 식용으로 이어지는 개의 이미지는 지극히 한국적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의 시공간을 직접 보여 주고 있다.

3. 나무도 보고 숲도 살피고, 두 가지 시선 모두 필요하다

영화라는 대중 매체는 호불호로 나뉘어 평가되고 많은 논쟁과 시비를 산출한다. 어느 시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상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는 당대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는 미디어이다. 물론 반시대적이거나 시대를 앞서간 또는 초월한 작품들도 있다. 그러한 비주류의 시도 역시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다.

어떠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하면 그 자체로 흥행에 성공한 만큼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소설이나 영화라 할지라도 일정부분 현실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모두가 비난하는 소수 광신도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니 더 극단적으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광인이 한 사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황당무계한 것이어서 도무지 우리 시대와 상관없다고 일축할 수 있을까?

프로이트와 융 그리고 푸코의 정신분석을 연결해 종합하면 그의 돌출적 광기는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의식하지 못했던 시대의 무의식을 절절하게 반영한 것이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그 시대를 알려면 소수의 광기를 분석해야 한다는 역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체로 미치면 그건 미쳤다고 하지 않는다. 애꾸들 나라에서는 양쪽 눈 멀쨌한 사람이 병신 취급 받는 원리와 같다.)

그냥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뜯어 볼 때는 전체 구조를 간과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물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시대의 상황을 감지할 수는 없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존재는 과거 역사의 반복 진행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전체 파악은 그 사회의 인문학적 상상력 없이 불가능하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또는 ‘구슬이 세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속담들은 모두 전체의 구조 속에서 개별적 물체들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언술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관계 파악은 직관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기존의 관념에 의거해서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 기존의 관념에 갇혀서 새로운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전체 구조, 핵심적 정체성을 모두 놓치고 만다. 새로운 차이는 어떻게 포획할 수 있는가? 물체들로 되돌아가 물체와 물체간의 상호작용을 살핀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일단 보류하고, 낯선 외부 처음 만나는 타자와의 조우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를 만든다. 거기서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사고방식이 산출된다. 그 과정에 불편한 고통과 충격을 피하려고 하면 아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없다. 충격의 양만큼 타자성과 외부성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달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난해한 글이나 논리를 피해가면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 안목의 깊이는 상상력의 크기와 정비례한다. 사람의 주체적 행동 반경은 그의 상상력보다 더 클 수 없다. 난해하고 불편하지만 새로운 통찰의 시선을 제공하는 텍스트가 있다.

4. 살인에 대한 무의식과 분열증적 자의식 <엔젤하트>

저평가된 작품, 아니 저주받은 걸작이니까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작품.

알란 파커 감독의 <엔젤 하트>이다. 이걸 그냥 공포영화나 스릴러 영화의 장르로 정리해버리면 곤란하다. 나는 이 영화가 미국인의 자의식 그리고 죄의식을 투사한 영화로 읽고 싶은 것이다.

대략의 줄거리 :

싸이퍼라는 이름의 사나이(로버트 드니로)가 어느 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사설탐정인 앤젤하트(미키 루크)를 찾는다. 그는 자기와 계약했던 조니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사라졌는데 조니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으니 그를 찾아 달라고 부탁한다.

앤젤하트가 조니를 찾는 과정에서 조니의 주변사람들을 하나 둘씩 만나는데 이상하게도 그 들을 만나면 얼마 안가서 그들이 살해되어서 조니를 찾는 일이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앤젤하트는 찾고 있는 조니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조니가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나서 앤젤하트로 변신하여 1941년부터 1953년까지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결국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된다.

이 엽기적 스토리에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1941년이라는 시점은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진주만 폭격을 계기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던 연도이다. (나치와 파시즘과 싸우다가 동서 냉전이 끝나자 이제는 미국 스스로가 자본을 앞세운 파시즘의 맹주가 된다.) 1953년은? 한국전쟁이 휴전하던 연도이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한 발짝 물러설 때까지 엄청난 인명이 살해되었다.

‘조니’라는 이름은 가장 일반적인 미국인의 이름이다. 영화에서는 조니가 사탄과의 약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두교 마술의 힘을 빌려 앤젤하트라는 젊은이의 심장을 꺼내어 먹었고 그 이후 앤젤하트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다. 그건 일종의 환유이다. 말하자면 미국인이 천사의 심장(앤젤하트)을 꺼내어 먹고 천사처럼 행동한 세월이 1941년에서 1953년까지의 세월이고 그 시절 동안 미국인들 자신도 스스로를 천사라고 믿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한 미국인들이 자각적으로 자신들은 세계의 인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정반대로 사탄에 영혼을 팔아 버리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악마 그 자체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 시점이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점인 것이다. 스스로 천사처럼 행동하던 미국이 한국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스스로가 악마의 꼭두각시 인형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다. (베트남전쟁 역시 한국 전쟁과 같은 맥락인데 영화에서는 언급이 없다.)

기억은 소멸되거나 다른 것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드러내지 않고 불투명한 기억의 시간을 동영상으로 보여 준다. 스크린에 재현된 것은 조니의 뇌에서 전개되었던 기억의 혼란스런 이미지들이다. 알란 파커 감독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시대의 진실을 드러내려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나와 숲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믿는 작가이다.

5. 근래에 본 영화 : <더스트 오브 타임>

테오 앵겔로폴로스의 <더스트 오브 타임> 2009년 부산영화제 상영 당시 못 보았던 작품을 2014년 연초 영화의 전당에서 '3인의 여배우' 기획 상영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인상적인 롱테이크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비극적 운명을 절절하게 연출해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례적으로 롱테이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내가 본 그의 영화 중 가장 짧은 씬, 가장 많은 컷들로 교차하며 채워지고 있었다. 당황스럽고 새로운 체험이다. 그러나 그의 기본 스타일은 변한 게 없다. 엘레니의 음악과 안개 속 풍경, 광장에서 흩어지는 군중 씬 등등. 예전의 서사시적인 이미지에서 보다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공간의 이미지로 분열되고 뒤섞여 마치 중심적 내러티브는 사라지고 감성들만 남아 표표히 떠도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2004년 테오 앵겔로폴로스가 부산영화제에 와서 했던 말:

결국 영화는 하나의 기록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것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우리시대의 인간에 대한 시선의 기억은 말소되고 말 것입니다. 시선을 거둘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화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영웅적인 절망'을 포기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봄이 새 단장하고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다가온다. 태양이 점점 일찍 나와 더 높이 하늘을 오르는 사이 얼어붙었던 것들 여기저기 분출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재촉한다. 그래서 그 빛깔이 화사한가 보다. 봄이 올라치면 역설적으로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모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시구절과 함민복님의 백목련이라는 시가 동시에 생각난다.

백 목 련

어찌자고 백목련은 항복의 백기(白旗)로
한 해를 시작하는가
한 생을 해탈한 자의 눈부신 파멸이여



함민복님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에 수록된 시입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 그 경계가 종전을 선포하고 남북한 경계가 사라져 영구 평화를 맞이할 때까지 끊임없이 꽃이 지고 다시 피어 날것입니다.

신광호 올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선행교육규제법’)통과를 환영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어제 2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일선학교에서와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때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시험출제를 금지하고, 대학별 고사에서도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시험출제와 입시전형 등을 통하여 선행학습을 구조적으로 유발해오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요즘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선행학습의 정도는 1~2학년 정도의 선행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공부를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행학습이 붐을 일으키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해왔습니다.

또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인성검사 등)에서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거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에 나올만한 내용들을 미리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가는 우리교육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선행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얼마나 그 제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실행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입시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등에서의 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자율성을 앞세워 선행교육을 받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한다면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 후를 대비한 선행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출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법안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참교육학부모회)

초등돌봄교실 신규인력충원 민간위탁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201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규인력 충원(민간위탁)계획”(부산광역시 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 781호 공문 관련)을 접하고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아동 돌봄 불안과 여성일자리 불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여 부산지역의 여성단체, 학부모 단체, 사회적 기업을 대표하여 함께 행동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의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2004년 시범사업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년 넘게 추진되면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인 돌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아동과 맞벌이가정, 일하는 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여성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부산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 초등돌봄교실 또한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초등돌봄교실에 종사하는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을 요구해왔고 수년간 일 해온 비정규 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시행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4년 학년도부터 초등돌봄교실 신규인력을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고용형태가 열악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학교 보육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되는 행정편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입니다.

우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1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규인력 충원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임혜경 교육감님께 즉시 철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은 가뜰이나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정책입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여성인력창출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시대역행 정책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013년 10월 부산시민 42,103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주민조례발의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보다 고용여건이 더욱 열악한 민간위탁으로 학교보육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으로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 보육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부산시민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2.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은 학교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정책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초등보육교실을 관리하는 정규교사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초등돌봄교실의 신규인력을 민간위탁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정규교사가 진행하는 교육의 질만 중요하고 방과 후에 진행되는 돌봄의 질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입니다. 위탁업체의 선정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이 중지될 수 있고 사용사업주와 소속사업주가 다르고 고용이 불안정한 민간위탁업체소속 보육교사가 어떻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이 추진 될 경우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에게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채용경로에 따라서 기존 보육교사는 무기계약자로, 신규인력은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육교사들 간에도 교육훈련 내용, 업무지침, 임금 지급 규정 등이 달라서 현장 교사들 간의 불평과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혼란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보육의 질은 낮아지고 학부모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3.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발상은 여성노동력을 경시하고 여성인권을 도외시하는 반인권, 반여성노동적인 사고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교육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등돌봄교실의 신규인력을 민간위탁으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위탁제도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이 금액 중 일정부분을 업체가 고용된 노동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고용형태로 인해 민간위탁업체 소속 여성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성희롱의 위험에도 더욱 많이 노출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민간위탁을 통해 그러한 사례를 수 없이 접해왔습니다.

또한 초등보육교실이 공교육의 한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학교에서 조차 여성노동자의 노동력은 필요할 때는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쓰다가 수요가 없어지면 계약해지해 버릴 수 있다는 반여성노동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이 초등보육돌봄교실 민간위탁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부산지역의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부산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양한 반대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함께하는 단체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민중연대

학부모알림란

◆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세미나

- **일시** : 2014년 3월 14일(금) 오후 4시
- **장소** : 부산시민센터
(지하철 양정역 1번 출구 → 센텀빌딩 6층)
- **내용** : 1부 발제 | 2부 학부모, 교사, 전문가 토론
발제 1 | 학부모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발제 2 | 학교문화 바꾸기 - 학교인권조례, 생활협약
발제 3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 평화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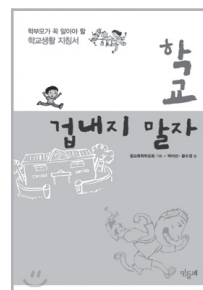
◆ 3월 독서 소모임

- **일시** : 3월 27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참교육 학부모회 부산 양정 사무실
(양정역 2번 출구, 아마하 피아노 3층)
- **내용** : 초등 저학년 동화 읽어주기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락처 : 조효정 010-3563-3142)

◆ 학부모 책 소개

| 선배 학부모가 시시콜콜 들려주는 학교생활 안내서 |

학교 가기를 겁내는 학부모들을 위해 참교육학부모회가 기획한 책으로, 성적에만 연연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로 거듭나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이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선생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비롯해,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학교 살림살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책은 지혜롭고 건강한 학부모가 되는 길을 제대로 알려준다. 학부모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학부모가 학교 돌아가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건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다. 이 책은 학교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고 따라서 부모가 학교를 겁낼 일도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엄친아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의 공부를 어떤 관점에서 도와주어야 할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는지,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등 부모의 교육관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돕는다.



저자 : 박이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아들 만 둘인 학부모. 많은 부모들이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일에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교육학부모회에 14년째 몸담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을 거쳐 2007년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저자 : 황수경

파주 출판도시에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푸근한 이미지로 학부모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에 하루하루 행복에 겨워 사는 아이 같은 어른. 호호 할머니가 되어도 도서관 지킴이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1999년 참교육학부모회 수도권 부회장을 거쳐 2000년 학부모 상담실장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학부모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부산시교육청, 부산맹학교 성추행 관련자 징계 교육부 재심 요구 수용

교육부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사 청구를 요청한 것(본지 지난달 25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21일 주최한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가해교사에 대해 애초 요구대로 '파면'을, 불문(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시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현장 조사에 참여한 A 특수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가해교사 등 4명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재심사를 청구하면 징계 수위는 처음 교육부의 요구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징계 당사자들이 교육부의 재심사 청구에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통해 부산맹학교와 시교육청 징계 대상 12명에 대해 중징계(7명)와 경징계(5명)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 5명(해임 1명·강등 1명·정직 3명) ▷경징계 4명 ▷불문 3명 등으로 의결해 '숨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2014-02-02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지역 아동센터 올상

방과 후 역할 겹쳐 대책 호소
시교육청, 연계 지원방안 고민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확대 시행되면서 역할이 겹치는 지역 아동센터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아동센터는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 학교 돌봄교실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맡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산지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에 따라 이용 아동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고 2일 주장했다.

돌봄교실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1, 2학년 학생은 오후 5

시까지 오후 돌봄교실에 등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학생 등은 밤 10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201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방과 후 저소득층 학생의 보호와 학습지원을 맡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돌봄교실 수요자는 1만2633명이었지만, 지역 아동센터는 2555명에 불과했다. 부산 내 지역 아동센터는 202개소에 4700명이 이용 중이지만, 앞으로 수요가 줄면서 복지서비스마저 위축될 우려가 크다. 반면, 1학급에 20~25명이 이용하는 돌봄교실은 305개 초등학교에 366개가 개설됐으며 525개까지 확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와 인근 지역 아동센터 간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아동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동센터는 지역별 편중이 심해 학교와의 연계가 쉽지 않다. 허요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산지부장은 “돌봄교실은 교육부, 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 때문에 예산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 연계가 어렵다”며 “복지서비스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지역 아동센터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부가 협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2014-02-02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부산 부성고 앞에서 찬반집회

“용감한 결단 격려하러 왔다” 보수 성향 인사들 지지 집회
“뚜렷한 이유 없이 결정 바뀌” 교과서 무효화 네트워크 비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부산 부성고교 앞에서 교과서 채택을 놓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양측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부산네트워크’(교과서 네트워크) 회원 20여 명은 3일 오전 부성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촉구했다. 교과서 네트워크는 “부성고가 애초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했지만,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교학사 교과서로 바꿨다”며 “이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비난했다. 교과서 네트워크는 개학일인 오는 10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학교 정문과 30m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 성향 인사 10여 명이 부성고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구성회(57·부산 해운대구 중동) 씨는 “교학사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상세히 기술하는 등 가장 정확하다”며 “용감한 결단을 격려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신현철 부성고 교장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은 좌편향적이다. 교학사 교과서만 아웅산 사태와 KAL기 폭파 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

등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로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에는 수정된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지 않은 데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여론몰이가 극심한 상황에서 임시로 지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수정된 교학사 교과서가 나온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부성고는 1970년 한얼재건학교로 개교해 세화여실(1981년), 문현여상(1992년) 등을 거쳐 2007년 부성정보고로 교명을 바꿨다. 2009년부터 부성고로 명칭을 바꾼 뒤 올해 입학생은 학교장전형으로 선발했다.

국제신문 / 윤정길 정철욱 기자 yjkes@kookje.co.kr / 2014-02-03

선행학습 금지법 8월 시행, 실효성 있을까

특별법 국회 교문위 통과
사교육기관 광고 등 규제
교육권 침해 위험 논란도

오는 8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은 시험에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광고 금지 등 선언적 규제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정규과정에서 선행교육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시험문제의 출제도 금지하고 있다. 입학시험도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했으며,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과정을 벗어난 내용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 평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은 선행학습을 광고·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특정 학년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문제를 출제해 온 과학교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의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물론 유치원과 사립 초등학교에서의 과도한 영어몰입 교육도 할 수 없다.

특별법은 이를 위해 각급 학교장에게 선행교육의 지도·감독, 선행학습 예방교육 실시 등 의무를 부과했다. 법 위반 때에는 인사징계나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정원 및 학과 감축, 심할 경우 학생모집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법 자체의 위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입시경

쟁의 상존, 지나치게 어려운 교과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행학습이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공교육 정상화 취지는 이해한다 해도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서다. 지난 2000년 과외금지 행위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과거 과외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학교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 / 광명섭 · 김종우 기자 kms01@busan.com/2014-02-19

해운대구 동백초 6학급 줄이기로

부산시 교육청의 학급 감축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던 해운대구 동백초등학교(본지 지난 3일 자 9면 보도)가 6학급 감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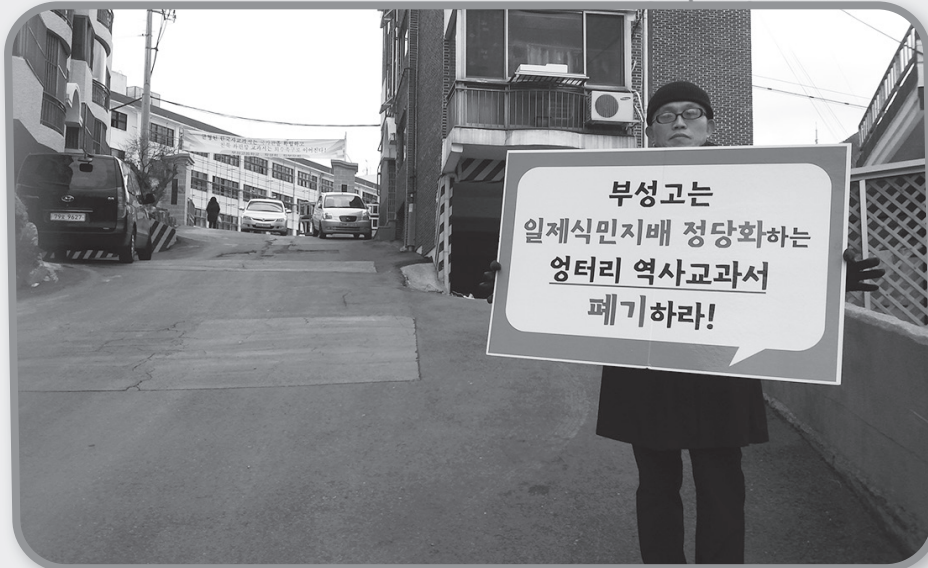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동백초는 2학년부터 5학년까지 1학급씩을 줄이고, 6학년은 2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 1학년은 이미 개학이 돼 담임교사 변경 등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커 학급수 조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동백초는 애초 27학급(특수학급 1실) 체제에서 21학급 체제로 바뀌게 된다. 학급 수 감축에 따라 교사 6명도 해운대교육지원청 관할 내 다른 초등학교로 파견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AID 재건축 아파트(힐스테이트위브) 2369세대의 입주에 맞춰 올해 동백초의 학급 수를 기존 15실에서 27실로 늘려 배정했지만, 시공사와 조합 측의 갈등으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학급 당 평균 학생 수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소 학급 문제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개학을 코앞에 둔 지난달 27일 6학급 감축과 교사 6명 파견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교사와 일부 학부모가 반발하며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2014-03-05

1인 시위



2월13일 부성고 앞 이창호 선생님과 최은화 총무부장님

전국 총회



전국 총회 토론 참여(2월 8일~9일, 대전 /
'2014 지방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지부
발표 중인 편국자 지부장님)



총회 참석(편국자, 최은화, 이창호,
남희선, 아들 한태경, 조효정)



열심히 참여 중인 남희선 회원님



의젓한 6학년 한태경 (남희선님의 자녀)



뒷풀이 분장 중인 편국자 지부장님

활동 사진

예비학부모교실

김은주 선생님
(2월 13일 덕천동 햇살 가득한 어린이집)



김선자 선생님
(2월 21일, 만덕2동 꿈동산 어린이집)



백점단 선생님
(왼쪽에서 두 번째/ 2월 15일, 당감동 성지문화원)
정찬호 교육부장님, 김진아 어린이 사업부장님,
김경화 회원,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최은화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예비학부모님들과 함께 임원 여러분,
이선애 회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김석준 교수 출판기념회
(2.19 부산일보대강당 / 편국자, 정찬호, 조효정 참여)



2.25, 교육청 앞 / 참학 편국자, 조효정 참여



2월 이렇게 보냈어요

- 2월 3일 부성고 규탄 기자회견
(부성고 앞 /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네트워크'와 함께 편국자 지부장님 참여)
- 2월 5일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대 기자회견
교육희망본부 공동대표단 2차회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 조효정 참여)
- 2월 6일 연대단체 - 부산 식생활네트워크 이사회 (편국자, 조효정 참여)
- 2월 8~9일 29차 참학 전국총회
(대전 유성 호스텔 / 편국자, 최은화, 이창호, 남희선님과 자녀 - 한태경, 조효정 참여)
- 2월 12일 연대단체 - 급식운동본부 전체회의 (조효정 참여)
- 2월 13일 부성고 1인 시위 (최은화, 이창호, 조효정 참여)
- 2월 13~21일 초등 예비 학부모 교실
- 2월 13일 덕천동 햇살가득한 어린이집 (김은주 선생님 / '엄마도 아이도 함께 신나는 학교가기')
- 2월 15일 당감동 성지문화원 (백점단 선생님 / '1학년 아이들의 특징과 준비물, 선생님 상담')
- 2월 21일 만덕2동 꿈동산 어린이집 (김선자 선생님 / '다른 아이들 이해하기')
- 2월 19일 김석준 교육감 후보 출판 기념회 참석
(편국자 지부장, 정찬호 교육부장, 조효정 참여)
- 2월 21일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계획 철회 호소문 전달
(부산 교육청 / 연대단체와 함께 편국자 지부장님 참여)
- 2월 25일 라디오 평화방송 '시사터치 오늘' -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입장
라디오 인터뷰 참석 (편국자 지부장님)
- 2월 25일 초등돌봄교사 민단위탁계획 철회 기자회견
(교육청 앞 / 참학, 부산여성회,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 여성회 등과 함께 조효정 참여)

2월 회비를 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순금(2만), 강아련, 강재성, 강정아, 강정화(2개월), 고내현, 고창민, 고혜경, 공외정, 곽선희, 곽차섭, 곽태순, 권서용, 권영순, 권인근, 김경선, 김경준, 김경화, 김경희(A), 김경희(B), 김기영, 김동철, 김동희, 김무진, 김미경, 김법기, 김상현, 김석준, 김성미, 김성희, 김수영, 김수진, 김영미(A, 5천), 김영미(B), 김영훈(2만), 김영희(A), 김영희(B), 김옥순(2만), 김원재, 김은정, 김익수, 김재홍, 김정숙, 김정은, 김정열(5천), 김정원, 김종만, 김지원, 김진아, 김차름, 김채안, 김춘미, 김평심, 김현봉, 김현준, 김형선, 김혜례, 김호정, 남광우, 남희선, 노귀전, 노영민, 노혜영, 노희정, 류봉심, 류정애, 맹일영, 문명숙, 문인숙, 문재경(5천), 문혜정, 민문식, 박경아, 박무준, 박미순, 박성미, 박유미, 박은숙, 박준건, 박향순, 박희옥, 배문주, 배선임, 배종만, 백성희, 백점단, 부지환, 서경애, 서권석, 서석태, 서인석, 서정호(A, 3개월), 서정호(B), 석은경, 선석열(2만), 성인심, 손건태, 손재광, 송경희, 송명희, 송미경, 송미순, 송부희, 송승희, 송언경, 신광호, 신수자, 신영희, 신용규, 신지원, 심미숙, 심성보, 안종기, 양윤자, 여진호, 오봉숙, 왕병구(2만), 우성만, 유동철, 유명희, 유은정, 윤내경(2만), 윤송태, 윤신숙, 윤연섭, 윤영근, 윤영이, 이경애, 이규남(2만), 이금숙(5천), 이남숙, 이내훈, 이병숙, 이선애, 이성하, 이수진, 이승중, 이영주(2만), 이은정, 이인경, 이일권, 이재홍, 이재희(5천), 이정인, 이정형, 이종명, 이진희, 이창호, 이행봉, 이혜숙, 이혜영, 이희주, 임석규, 임선희, 임영선, 임주연, 장동제, 장말선, 장미자(5천), 장선희(2만), 장순옥, 장유성, 장은숙, 장정인, 장지숙, 장현숙, 전순실, 정동주, 정동희, 정명주(3개월), 정미경, 정수련, 정승호, 정영배, 정윤숙, 정재천, 정찬호, 제진희, 조금제, 조명숙(3만), 조병준, 조석현, 조원국, 조정화, 조효정, 주우명, 주정현, 지영경(5천), 채승영(2만), 최경희(A), 최경희(B), 최미경, 최영순, 최은화, 최준수, 최정홍, 최종수, 최지선(2만), 최한, 편국자(2만), 편유희, 하경옥, 함정화, 홍동희, 홍정희, 황마리아, 황선애, 황은옥(2만)

■ 2월 결산 보고

수입	지출내역	지출금액	이월금
이월금 3,541,323	중앙 분담금	619,860	2,719,903
	전국총회참가여비	364,000	
회비수입 2,245,000	사무실 운영비	267,560	
	연대사업비, 후원금	200,000	
후원금 100,000 총회후원금 30,000	소식지 발송비	118,000	
	소식지 인쇄비	352,000	
	사무실 임대료	275,000	
이자수입 0	상근자 급여	800,000	
	지부장님 활동비	200,000	
기타수입 0			
수입 합계 5,916,323	지출 합계	3,196,420	

※ 전국총회 차량을 후원해 주신 최은화 총무님과 이창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후원금으로 곽선희 조직부장님께서 3만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비학부모교실 3회에 걸친 강사님의 강의료 15만원(각각 5만원 씩 세분의 강의료)은 편국자 지부장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사업비는 부산식생활네트워크에 15만원을 회비로, 3.8여성의 날 행사 후원금으로 5만원을 냈습니다.

※ 후원금 1십만원은 무명으로 입금되었고, 1월 유과 판매사업 입금은 3월 10일에 마감했습니다. 4월에 결산 보고하겠습니다.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구좌번호 : 101-2001-6612-01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잔고부족으로 통장에서 미인출된 회비는 다음달에 2회 인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인출 회비 최대 3개월치 인출됩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주요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출판·홍보활동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는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음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 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